

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안내




1. 정부에서는 고졸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아이들의 다양한 꿈 실현, 경쟁 중심 교육 완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이를 위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2. 이에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 인력 채용 관련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비전

“고교졸업 ▶ 대학진학” 일변도에서 벗어난
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

목표

✓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% 달성('22년까지) ✓

-  **학생** |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직업교육을 받고, 고졸로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·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 **기업** | 인성·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 채용
-  **지역** | 지역공동체(커뮤니티) 중심의 양질의 교육 - 취업 활성화

과제 목표	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겸비한 고졸 인재 육성	고졸 채용 분 사회 전반으로 확산	고졸 성공 사회적 경로 정착
주요 과제	취업전 중등직업교육 강화	취업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	취업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· 학생 중심의 중등직업 교육체제 구축 · 중등직업교육 기화실질적 보장 · 상생·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· 중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· 기업의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·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· 고졸 취업 지원 체계 강화 · 중소기업 근무여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선형성 지원 확대 · 고졸 근로자 역량 개발 지원 기업 확대 ·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 지원 강화
성과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졸취업 및 고졸취업자 지원 내용을 범정부적 국정과제로 추진 · 고졸취업 확대 방안 과제 추진·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·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 정기 점검 		

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(안)

□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

- (인증제 도입) 능력중심 고졸채용,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을 고려, '선취업-후학습 우수기업' 인증제 신설('19년)
 - ※ 현행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(Best-HRD)분야를 '대기업', '중소기업' 2개 분야에서 '선취업-후학습 우수기업'을 추가한 3개 분야로 개편
 - (병역특례업체 선정우대) '청년친화 강소기업'(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) 선정시 인증기업에 가점(5점) 부여
 - (정책자금* 지원) '일자리창출촉진자금**' 지원 대상에 인증기업 포함
 - *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·저리로 공급하는 자금
 - ** '19년 (예산) 3,000억원 / (금리) 2.0% 내외 / (한도) 60억원 내외 / (대출기간) 5~10년
 - (공공입찰 가점) 인증기업이 공공입찰시 신인도* 가점 부여
 - * 적격 심사시 계약이행능력(납품실적, 기술등급, 경영상태) 취득점수와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
 - (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) 인증기업에 중소기업 R&D,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*시 우대
 - *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시, 반영하는 일자리평가에 +5점 배점 부여

□ 자산형성 지원 확대

- (고교취업연계 장려금)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*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('18, 1인당 300만원, 24,000명 → '19, 25,500명 → 단계적 확대)
 - *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(1년) 학생 선별 지원
 - ※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근무(6개월),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·환수

- (청년내일채움공제)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*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

* 중소·중견기업 2년 근속 시, 1,600만원 / 3년 근속 시, 3,000만원 자산형성 지원

-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*

* (현재)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유지 불가(야간·사이버는 가능)

→ (개선) 근로자신분 유지 및 임금수령 + 주간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입 유지

□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기업 확대

- (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활성화)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(최대 2년)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 지원*(’18년~)

* 기간 : 1개월~2년 / 규모 : 훈련비·인건비(최저임금 150%), 대체인력 인건비(최저임금 100%)

-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시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,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변경(’19)

- (처우개선)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결과(학위취득 등)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‘선취업-후학습 우수기업’ 선정시 주요 지표로 활용

- (기업문화 확산) 중앙부처, 지자체, 경제단체(대한상의, 중기중앙회 등)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,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에 힘쓰는 기업문화 확산

□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(후진학) 지원 강화

- (학비 지원)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, 대학 진학시 학비 전액*을 지원

* (고졸 후학습자 장학금) 중소·중견기업 3년이상 고졸재직자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

- (국립대)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,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* 운영을 확대(’19년 거점국립대 → ’22년 국립대 전체)

* (후진학자 전담과정) 학과 모집대상 전원 재직(경력)자로 선발 야간·주말·온라인 수업 등 운영

- (4년제)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 사업*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('19년 20개교)

*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비, 운영비, 시설비 등 지원

- (전문대)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*을 신설,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및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후진학 경로 제공('19년 15개교 선정)

* 수요 맞춤형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,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유연화,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·재직자 교육 등 ('19, 15개교, 교당 10억원 지원)

-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 사업 대상을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후진학자에 대한 학위 획득 기회 제공('19년 6개교)

- P-TECH*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제학교 등 고졸재직자의 직무능력 심화 및 후학습 지원('18년 13개 → '19년 23개)

*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융합형·신기술 등 훈련 지원(전문대 수준)

- (조기취업형 계약학과*) 3년간 취업과 학위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후진학 경로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('18년 ^(추경) 5개교 →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 확대)

*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 후(입학생 전원 취업), 2년 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

- (간호학과 계약학과)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들이 간호조무사 취업 후, 대학에서 후학습 과정을 통해 간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

※ 구체적인 운영 방법, 시기 등은 부처 간 협의 후 추진